

곡성군,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기원 홍보활동 전개

기차마을 장미축제장내 적인선사탑 실물 모형 전시 서명 운동도 함께... "국보로서의 문화재적 가치 충분"

곡성군이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축제장 안에 적인선사탑 실물 모형이 설치돼 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태안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적인선사탑의 국보 승격 기원을 위한 서명 운동도 함께 전개되고 있다.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 861년에 적인선사 해철 스님의 입적과 함께 그의 행적을 추앙하고 길이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승탑으로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 273호로 지정됐다. 지난 3월에는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들이 함께해 적인선사탑 국보승격을 기원하는 '문화재 바로알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또한 학술대회를 통해 통일신라 승탑 중

모든 부재가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는 유일한 문화재로서 국보 승격의 당위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안사와 함께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또한 적인선사탑이 국보로서의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고, 군민들이 염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3월에 태안사 적인선사탑의 국보 승격 지정신청서를 전라남도에게 제출했으며, 오는 6월에 전라남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군, 세금 상담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역 취약계층 등 군민들의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구례군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군민의 세금 고민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구례군은 임계동 세무사(다인회계사무소)를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

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로 함께 운영한다. 지방세 불복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업무 담

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해 안내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인은 신청 불가하며, 개인만 가능하다.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76)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군민들이 복잡한 세무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홍보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화순관광 청년PD 모집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화순관광 홍보

화순군이 지역 청년들을 통해 다양한 화순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화순관광 청년PD'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지가 광주 및 전남으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개인 SNS를 운영하며 평소 화순 관광에 관심이 있는 자이다. SNS 활용 우수자, 블로거, 유튜브, 여행작가, 관광·홍보업계 경력자는 우대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5명으로, 선정심사를 거쳐 6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청년PD로 선정된 자는 관내 대표 관광지 및 맛집, 숨은 관광 명소를 찾아 관광 콘텐츠를 취재하여 화순군 문화관광 누리집과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매월 최대 4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해야 하며, 활동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활동비(100,000원/건)가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화순군 누리집(고시 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서류를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박승철기자**

담양군, 5월 가정의 달 맞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우(리들의 권)리 아시나요?" 아동 권리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 제고



담양군은 지난 27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담양읍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여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메타프로방스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담양경찰서, 전남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 유형 안내, 아동 권리증진 활동, 아동학대 OX 퀴즈 등을 진행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아동이 행복한 담양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시민 정책 아카데미 6월 16일까지 수강생 모집

6월23일~7월1일, 매주 금·토요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4회 개최

나주시가 모든 정책의 주체이자 제안자인 시민의 정책적 역량을 키워 참여 행정을 구현한다. 나주시는 오는 6월23일부터 7월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총 4회차로 구성된 '제1회 시민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민선8기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정책 의제·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복지', '문화·관광', '창업·일자리·소상공인', '농업·농촌' 등 4개 정책 분과로 아카데미

수강생 총 30명을 6월16일까지 모집한다. 수강생들은 정책 전문 특강과 멘토링, 분과 토론, 소관 부서 간담회를 통한 정책 설계와 조례 기획, 제안서 작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역량을 키우게 된다. 제1회 아카데미는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6월 23일 1회차(오후 6시45분~10시), 24일 2회차(오후 1시~5시), 30일 3회차(오후 7시~10시), 7월 1일 4회차(오후 2시~4시) 순으로 진행된다. 4회차에선 각 분과에서 시민이 개발한 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주=송준표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널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